# Augustinus' Confessio(어거스틴의 고백론) 10 장

## 1) 들어 가기

히포의 보조 주교였다가 주교(bishop)로 봉직(奉職)하기 시작했던 해인 기원 후 396 년부터 398 년 사이에 출간된 것으로 알려진 어거스틴(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참회록)은 라틴 고전기의 그것 보다는 뒤지지만 운율을 지닌 일종의 詩이다. 운율을 통해 자신을 창조한 그 분께 자신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로 인하여 읽는 모든 이의 영혼(animus)이 창조주 그 분을 인식하여 행복에 다다르기를 그는 바랬던 것이다.

나는 모두 13 권으로 이루어진 그의 참회록 중 자신에 관한 고백인 1~10 권-나머지 세 권은 성서에 기록된 천지창조에 관련된다(검토록, II, 6)- 가운데 43 장으로 이루어진 그 끝 제 10 권(성한용 교수 번역, 성 어거스틴의 고백론, 대한기독교서회, 2001 년, 304-374 쪽)을 먼저 요약 한 후, 거기에서 거론된 기억(memoria)에 대해 약술하려 한다.

## 2) 요약

1~5 장에서는 어머니 모니카 때문에 그 분께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으로 끝난 9 권까지의 모든 고백이 지니는 성격과 그리고 그 방법과 목적이 드러난다. 가슴과 글(말)을 통해, 침묵과 비(非)침묵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상태의 나를 심지어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그 분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고백한 것을 읽고 들으므로서 읽거나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더 이상 그 죄들을 반복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면서 창조주 그 분을 인식하는 행복한 삶에, 그 분의 자비에 의해, 도달하는 것.

**1장**: *오직 신 안에서만 사랑의 희망과 기쁨(spes et gaudium)이 있다*

나는 당신 앞에서는 가슴으로(in corde), 많은 증인들 앞에서는 필(筆, in stilos)로 고백합니다. 빛으로 오신 진리(당신)께서 바라시므로.

2장: *모든 것이 신을 드러 낸다는 것, 그 분께 드리는 고백(참회)은 육신의 말이 아니라 영혼의 말 그리고 회개의 부르짖음이어야 한다는 것.*

빛으로 비추이시는 그 분께는 모든 것이 드러 납니다. 그 분께 드리는 고백은 침묵 속에서 그렇지만 침묵하지 않고(et non tacite)드려집니다. 시끄러울 때는 잠잠하며 정열적일 때는 크게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고백하는 말은 당신이 전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3장: *신께 올바르게 고백하는 자가 신 그 분을 가장 잘 압니다.*

사랑(charitas)으로 듣는 자만이 저의 말이 참임을 알 것입니다. 이 책(litteras)을 통해 나는 내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과거의 나의 죄(mala)를 듣는 자들의 마음이 감명을 받아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내면의 내가 누구인지를 타인들이 직접 들어 알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4장: *다른 사람에게 하는 고백을 통해 선한 일을 행 할 수 있으리라는 것.*

5장: *사람(homo)은 자신을 모두 알지는 못한다.*

사람 안에 있는 영(spititus)도 그 사람에 관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의 영이 나에 관해 모르고 있는(neceiam) 바로 이것을 고백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실, 나에 관해 알게된 것도 당신의 빛이 저를 조명 해 주시기(quoniam et quod de me scio te mihi lucente scio) 때문입니다.

6~24 장에서는

6장: *자신의 자연에 있어 모든 피조물 보다 우월한 신의 사랑은 각 각의 앎과 이성의 행사에 의해서 얻어진다.*

저는 내 안 하나님의 빛과 소리와 향기와 음식과 포옹을 사랑합니다. 그

러나 이것 역시 내 안의 당신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창조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내 몸의 도움을 받아 안에 있는 내 영혼이 안 것이지, 결코 내 밖의 몸이 모든 것의 창조를 안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감각적인 모든 것들도 신이 자신들을 창조했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동물(animalia)에게는 감각에 의해 주어진 것을 판단(judeso)할 수 있는 이성(ratio)이 없으므로 어떤 것을 볼 수는 있지만 그것에 관해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물음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노새는 판단 능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물어 보고 판단(judicantibus)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대답 해 주나 판단력이 없는 노예와 같은 '사람'에게는 침묵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에게 다 똑 같이 말해주지만 감각된 소리를 안에 있는 것들과 비교(판단) 할 수 있는 자만이 그 소리의 뜻을 이해합니다(intelligrant).

7장: *신은 몸이나 영혼의 힘들(virtute)로부터 발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를 육신과 연결시켜 주는 영혼을 통해 영혼의 힘(vim)을 초월하여(transibo) 그 분께 나아갑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의 '나'(영혼)에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또는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기도[이것은 참회와 찬양의 詩이기도 하다]를 통해 그 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백은 신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그 고백에 동참하는 것 역시 신을 함께 알아가는(intelligere) 것이지요.

그런데 신을 알아가는 과정은 영혼의 일이므로 감각의 힘(vis)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감각은 그 자체로서 자신의 생명(vita)을 지닌 것이 아니라 영혼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힘 역시 초월해야 한다. 영혼에게 현재하는 생명은 영혼 그 자신에 의해서 생겨 난 것이 아니라 그 분에 의해 주어진 것이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감각을 모아 비교하여 판단하는 영혼의 힘을 마찬가지로 초월하여 기억이라는 힘에 닥아서야 합니다.

8장: *기억의 본성과 힘에 관해.*

기억에는 감각을 통해 주어진 모든 사물들의 여러 상(imaginum[1]), 相)들이 간직 돼 있는데, 이것들 중 어느 하나에 원하는 의지를 행사하여 불러 내어 오는 것이 기억입니다. 이 때 원하지 않는 것이 호출되면 (나는) 기억의 면전에서 마음의 손으로 거부(abigo)하나, 기억 해 내면 사람의 생각에 떠 오릅니다(sunt cogitationi reminiscenti). 바로 이런 기억을 통해 나는 맛 보거나 만지지 않고 꿀이 술보다 좋으며 매끄러운 것이 거친 것 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해 있는(praesto sunt)것은 바로 이러한 생각 안의 영상들입니다. 영상들을 꺼내어 구성 해 보고 그것들이 과거의 맥락에 맞는가 견주어 보기도 하며, 그것을 토대로 미래의 행동과 사건(eventa)과 희망을 추측하여 이 모든 것을 현재의 것들로서 명상(praesentia meditor)합니다. 이렇게 나는 내 마음의 창고(기억) 안에서 나에게 말하는 순간 내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영상들이 같은 기억의 창고로부터 나와서 내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이 거기에 없다면 나는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억의 힘은 나의 자연에 속해 있는 내 영혼의 힘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의 전부를 파악 할 수 없으므로 내 영혼이 내 자신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너무 좁은 듯합니다. 왜 그러하며,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는가 등의 물음에는 내 마음이 어리둥절하여져 경의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9장: *사물들의 상(相)들 뿐만이 아니라 학문적인 모든 지식들이 기억으로부터 상기에 의해 얻어진다.*

기억의 더 깊은 내면의 곳에는 학예의 지식으로서 배운 것들 중 망각돼

---

1) 사물들의 감각된 상들(소리, 빛, 색깔, 형태, 냄새, 맛, 강도, 경도, 촉감 등 등의 상)이지, 사물(res)들 자체가 아니다.

지 않는 것이 간직 돼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물들의 (영)상들이 아니라 사물들 자체(res ipsa)로서 밖에 있으며 그리고 영상만 기억 안으로 들어 오는 것들과는 다릅니다. 이것들은 기억된 소리가 들려지는 것과도, 기억된 냄새가 맡아지는 것과도, 맛 접촉 등 등의 그것들과도 다릅니다. 이것들과는 달리, 배워진 것들의 영상은 빨리 포착 돼, 기억의 깊숙한 밀실에 간직 됐다가 신기한 방법으로 상기(想起)의 작업을 통해 다시 불려 나옵니다.

10장: *학문적인 모든 지식들은 감각을 통한 기억으로부터가 아니라 보다 깊숙한 곳으로부터 불려 나온다.*

이것들은 육체의 감각을 통해 만지거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animum meum)으로 만 파악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소리도 냄새도 맛도 형태도 없는 것들로서 (모든 것에 관련된) 세 가지 물음, '있을까'(an sit), '무엇인가'(quid sit), '어떤 것인가'(quale sit) [ 중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 ] 문제 삼는 '본질'(res ipsa)입니다. 이것들은 학습한 후 시인하여 옳다고 긍정한 것들 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여 이것들이 내 기억에 들어 오게 됐는지를 저는 알 수 없지만, 배워 알기 이전에도 내 영혼 어디엔가 상기되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른 사람의 암시(가르침)로 끄집어 내지 않았다면 내 기억의 깊숙한 구석에 파 묻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나는 그것들에 대해 결코 생각하지(cogitare)못 했을 것입니다.

11장: *배우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감각을 통해 우리 영혼에 들어 오지 않는 것들 즉 사물 자체(se ipsa)들을 감각적인 영상에 관련 없이 우리 안에서 알게 된다는 것은 기억 속에 이미 있었으나 흩어지고 혼돈된 상태로 있는 것들을 단지 생각의 과정을 통해 거두어 모으게 된다는 것 일 뿐입니다. 이렇게 거두어 모으는 것에 주의를 쏟아 질서있게 정리하여 기억 안의 가까운 곳에 우리는 그것들을 간직하여 두게 됩니다. 바로 이것들을 우리는 배워 알게 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안다는 것은 흩어져 있는 것을 거두어 모은다는(colligender)것입니다. 바로 이 ‘colligender’에서 ‘cogitare’(생각하다) 라는 말이 나온 듯합니다. 라틴어 ‘ago’(나는 한다)와 ‘agito’(나는 계속한다)가 연관 돼 있고 ‘factio’(나는 만든다)와 ‘factito’(나는 계속 만든다)가 연관 돼 있는 것처럼, ‘cogo’(나는 모은다)와 ‘cogito’(나는 생각한다)도 연관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cogito’ 라는 말을 마음의 기능에만 적용하여 사용한 까닭에, 다른 곳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거두어 모으는 것’ 만을 ‘나는 생각한다’(cogito) 라는 말로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12장: *수학적인 것을 상기하는 것에 관해.*

기억은 (배워진) 수와 크기의 법칙들(leges)을 자신 안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수학적인 선들을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물체를 생각함 없이 그 자신 안에서 그것들을 보고 시인하며, 그 사람이 계산 할 때 사용하는 숫자들을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 알고 있긴 해도 셈하는 수(quibus numeramus, 수의 개념)은 이 숫자(numeros)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는 숫자들의 영상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란 진정으로 존재하는(ideo valde sunt) 것입니다.

13장: *기억을 기억하는 것.*

내가 지금 진리와 오류를 식별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과거에 이 문제를 생각할 때 그러한 식별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러한 사실을 이해 했었다는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고 또한 현재 내가 식별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현재 이해하고 있는 것을 어느 미래에 내가 그것을 그 때 이해 했었다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내가 기억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ergo et meminiesse me menini).

14장: *기쁨과 슬픔이 기억되는 방식에 관해.*

기억 자체에는 여러 감정들(affectiones)들도 간직 돼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은 영혼이 겪은 그대로가 아니라 기억력(vis momorie)에 따라 적절하게 다른 상태로 기억됩니다. 지금 기쁘거나 슬프거나 두렵거나 욕심부리지 않으면서도 과거에 기뻤거나 슬펐거나 두려웠거나 욕심부렸다는 것을 기억 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거꾸로 지금 그러면서도 과거에 그렇지 않았다고 기억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과 육신(corpus)은 서로 다르기에(aliud)그렇습니다. 그러나 영혼과 기억은 그 자체 거의 같은 것입니다(sit etiam ipsa). '기억하라' 고 명 할 때 '여보게, 이것을 마음에 두게' 라고 하며, 망각 했을 때 '내 영혼에 떠 오르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보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뻐하면서 과거의 슬픔을 기억 할 때, 왜 자기 안에 있는 슬픔 때문에 기억은 슬퍼하지 않습니까? 좀 우스운 비유같지만, 기억된 감정들은 위속의 음식물처럼 간직되어, 그 맛을 볼 수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치 소가 위에서 음식물을 끄집어 내어 새김질 하듯이 사람들은 감정들을 상기(想起)하여 기억 속에서 끄집어 내 종류별로 분류(dividendo singula per species) 정의하여 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때 감정들 예를들어 욕망(cupiditatem)이나 기쁨(laetitem), 두려움(metum), 슬픔(tristitam) 등을 기억하여도 나는 이것들에 의해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감정을 상기하거나 생각 할 때 기쁘거나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과 두려움에 대해 말 할 때 마다 슬퍼하거나 두려워 하지는 않습니다. 말해지고 있는 것들 자체의 개념들(rerum ipsarum notiones)은 육신의 감각을 통해 영혼에 들어 온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15장: *부재하는 것들(quae absunt)에 관한 기억에 관해*

이름(nomino)으로 말해지고 있는 것들은 그 자체(res ipsae) 감각이 부재해도(sensibus non absunt)그것들의 영상(imagens)은 내 안에 있습니다. 예를들어 통증이 내 안에 부재 해도 '육신의 통증' 이라고 말하는 경우 이름 '통증'의 영상은 내 기억 안에 있습니다. 만약 있지 않다면 그것에 대해 무어라

말 할 수도 없고 통증을 기분좋음 등과 식별 해 말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이 때 [그 이름에 상응하는] 것 자체(res ipse)는 나에게 있습니다(adest mihi quidem res ipsa). 또 내가 계산 할 때 수라는 이름(nomino numeros)을 말하는 데 이 경우 내 기억 안에 있는 것은 수의 영상이 아니라 수 그 자체(ipsi) 입니다.

16장: *기억의 결여(privatio)인 망각도 기억에는 있다.*

또한 망각(oblivoirem) 이라는 이름을 말 할 때 나는 망각했다는 것을 기억함 없이는 망각 그것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즉 말해지고 있는 망각 이라는 이름의 소리가(sonum nominis dico) 가리키는(의미하는) 것(quam significat)을 나는 이해합니다-그 소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망각의 '의미'를 잊었다면 '망각' 이라는 이름을 말해도 그것을 이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각을 기억 할 때는 망각과 기억, 즉 기억하는 기억(oblivio quam meminerim)과 망각된 기억(memoria qua meminerim)이 함께 현재 합니다(praesto). 그런데 망각은 기억의 결여(parivatio menoriae)이므로 망각이 내 기억 안에 현재하는 한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여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망각된 것을 기억 할 때 그것 자체(per seipsam)가 아니라 그것의 영상이 우리의 기억 안에 있다고 결론 내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망각 자체(per seipsam inesse)가 기억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잊은 것들을 상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잊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것을 더 깊이 탐구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해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억하는 것이 내 기억 안에 없다고, 그리고 아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망각(한 것)이 내 기억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absurdissimum). 그렇다고 '내가 망각(된 것)을 기억하고 있을 대 망각 그 자체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망각들의 영상들을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망각 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억된 인상들을 지워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째든 그러나 망각(된 것)이 기억되는 방식을 이

해하거나 설명 할 수는 없어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한 나는 이미 기억한 것을 지워버리는 망각까지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17장: *짐승들이나 새들도 소유하는 기억력에 의해서는 신에 도달 할 수 없다.*

육신적인 것들은 영상들로, 지식(artium)은 현재 함(praesentiam)으로, 영혼의 감정들(affectiorum)은 설령 지금 느끼지는 못한다고 하더래도(nescio) 관념 또는 관념 비슷한 것(quas noitiones)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이런 기억력은 동물들이나 새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동굴이나 둥지를 찾아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익숙한 여러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저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구분하셨고 공중에 나는 새들 보다 더 지혜롭게 만드셨으니 당신께 다다르기 위해서 저는 그러한 기억 마져 초월해야 합니다(transibo). 저는 제 기억을 초월하여 올라가 당신을 찾으려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사랑이신 당신을 찾을 수 있습니까? 만약 기억 없이 당신을 찾았다면 저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 할 것이고, 당신을 기억하지 있지 않다면 어떻게 제가 당신을 찾을 수 있습니까?

18 장: *잃어 버린 것은 기억되지 않는 한, 발견 될 수 없다.*

잃어 버린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설려 보더래도 그것을 알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의 영상이 우리 영혼에 간직 돼 있어야 그것을 알아 보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19 장: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알아 볼 수(agnosceremus) 없는 것은 망각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망각 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망각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완전히 망각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혀 찾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20 장: *우리가 알지 못했었다면 신을 찾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제가 당신을 찾으려 할 때  실은 행복한 삶(viatam beatam)을 찾고 있습니다. 제 영혼이 살기 위해 당신을 찾는 것입니다. 내 육신은 영혼으로 말미암아 살아 있으며 내 영혼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의심 할 바 없이(dubitatione) 그러하듯이 저도 행복한 삶을 찾는다는 것은 저나 다른 모든 사람이나 지금 행복한 그 삶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행복한 삶이라 이름하는 그것 자체(res ipsa cujus hoc nomen est)가 우리 기억 안에 [망각으로서] 간직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찾고 있을 수 없습니다.

21 장: *행복한 삶이 어떻게 기억 안에 간직 돼 있는가?*

행복한 삶을 기억하는 것은 물질적인 대상이나 수(numerus)나 웅변이 아니라, 기쁨을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삶과 행복은 물질적인 것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의 관념(notiones)을 마음에 지니고 있다고 만해서 그것을 소유하러 들지는 않는 수와 같은 것도 아니고, 설령 그것을 소유하러 들지라도 그것이 육신의 감각을 통해 일어나는 웅변 같은 것이 아니라, 현재 슬플 때도 기쁨이 기억 될 수 있는 것처럼 불행 할 때도 행복이 기억될 수 있으며 기뻐하는 것이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행복한 삶 역시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기를 모두 원하듯 행복한 삶을 강한 의지로 모두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언제 어디서 행복한 삶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에 모든 그것을 기억하며 사랑하여 그리워하는 것입니까? [ 언제 어디에서 기쁨을 느꼈기에 기쁨을 기억하며 사랑하여 그리워합니까? ]

22 장: *행복한 삶은 신 안에서 신을 위해 신을 즐거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쁨은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참다운 행복

한 삶을 당신 안에서 당신을 향해 당신 따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만을 목적으로 예배하는 경건한 자에게만 당신은 주십니다.

23 장: *진리 안에서 기뻐하기를 모두 바랍니다.*

진짜 행복한 삶은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모든 사람은 원하고 있습니다. 속임 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원하는 자는 한 명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사랑한다면 진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아가서 그것에 관한 지식을 기억에 간직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사랑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희미하게 기억하면서, 여러가지 것에 너무 관심을 많이 지니는 까닭에 후자의 힘이 전자의 힘보다 더 커져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꺼지지 않는 적은 빛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진리를 미워합니까? 진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속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 자신들이 속고 있음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기는 싫으나 남을 속이기는 좋아 하므로, 진리가 그들에게 드러 날 때에는 그것을 사랑하나 진리가 잘못된 그들을 들추어 낼 때는 그것을 미워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다른 많은 것들로 인해 헷갈림없이 유일한 그것에 안기어서 만 기쁨을 누리게 될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24 장: *진리를 발견하는 자는 신을 발견합니다.*

당신을 알게 된 이후 계속 당신은 내 기억에 임재 해 계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곳에서 당신을 기억하여 당신을 기뻐 할 때 당신을 찾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거룩한 기쁨인 이것은 당신께서 자비로서 재 궁핍함을 굽어 살피서셔 행복한 삶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진리를 처음 알게 된 때부터 진리를 잊어 본 적이 없습니다.

25 장: *신은 자신의 기억 안에서 거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렇다면 당신은 내 기억의 어느 부분에 거처하고 계십니까? 동물도 지니는 기억의 부분은 아닙니다. 기억 속에 간직 돼 있는 육신들의 영상들 사이에서 당신을 찾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초월하여 나는 영혼의 감정을 간직 해 놓은 곳으로 갔으나 거기에서도 당신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기억 안에 있는 바로 내 영혼(animus)의 자리에 들어가서 마음더러 그 자신을 기억하도록 하였으나 거기에도 당신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육신의 어떤 영상도 아니요, 살아 있는 사람들의 감정도 아니며 또한 영혼 자체도 아닙니다. 당신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변하나 이것들을 초월 해 계시는 당신은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내가 당신을 알게 된 때부터 내 기억 안에 거하시기로 택하셨습니다. 당신을 처음 알게 된 때부터 저는 당신을 기억하여 왔으며 또한 당신을 생각하게 될 때 내 기억 안에서 찾아 뵙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억 안에서 당신을, 마치 특정한 장소에 계시는 것처럼, 당신이 거주하시는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당신이 거기에 따로 계시는 특별한 장소는 없습니다. 당신은 어디든지 계셔서 당신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26장). 그렇게도 오래돼셨지만 그렇게도 새로운 아름다움이 되시는 당신을 저는 너무 늦게 사랑 했습니다. 피조물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저를 당신에게서 멀리 떠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피조물의 아름다움은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존재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은 저를 부르시고 소리질러 귀머거리 된 저의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 또한 당신은 당신의 빛을 번쩍 비추이사 제 눈의 어두움을 쫓아 버리셨습니다(27장). 주여 가엾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28장). 저의 모든 희망은 오로지 당신의 크신 자비에만 있나이다(29장). 꿈 속에서도

나는 유혹 당하고(30장), 먹을 욕심(31장)과 향긋한 냄새의 즐거움(32장)과 달콤한 소리의 즐거움(33장)과 보는 쾌락(34장)과 호기심으로부터의 유혹(35장)과 교만의 유혹(36장)과 칭찬(37장)과 허영(38장)과 자기 만족(39장)에 빠진 비참한 실존의 인간(40장)입니다. 당신과 거짓을 동시에 소유하고 싶었기에 저는 당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진리인 당신은 거짓과 함께 소유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41장).

이러한 저를 당신과 화해시킬 자를 제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이상한 환상이나 광란에 찌든 자들과 그리고 학문의 교만에서 당신을 찾으려 했던 자들처럼, 빛나는 천사로 가장한 사탄을 저는 찾고 있었습니다. 육신이 없는 사탄이 교만을 통해서 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킬 중보자는 하나님과 같아야 하는 동시에 인간과도 같아야 합니다(42장). 주여! 당신은 은밀한 자비로 참된 중보자(verax mediator)를 인간에게 보내시어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겸손을 통해 겸손(humilitatem)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분은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들과 그리고 불멸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분은 인간인 면에서는 중보자시나 말씀이신 면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적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 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 병은 많고도 중합니다. 정말 제 병은 많고도 중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약은 제 병 보다 더 강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당신의 말씀이 인간에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여 절망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저의 무지와 병을 아시어서 저를 가르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제 자신은 가난하기에 먹고 배부르기 원합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들은 그를 찬송 할 지어다(34장).

# Augustinus' Confessio(어거스틴의 고백론) 10 권

## 1) 들어 가기

히포의 보조 주요였다가 주교(bishop)로 봉직(奉職)하기 시작했던 해인 기원 후 396 년부터 398 년 사이에 출간된 것으로 알려진 어거스틴(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참회록)은 라틴 고전기의 그것 보다는 뒤지지만 시적인 운율을 지닌 일 종의 詩이다. 운율을 통해 창조주 그 분께 자신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로 인하여 읽는 모든 이의 영혼(animus)이 그 분을 인식하여 행복한 삶에 다다르기를 그는 원했던 것이다.

나는 모두 13 권으로 이루어진 그의 참회록 중 자신에 관한 고백인 1~10 권-나머지 세 권은 성서에 기록된 천지창조에 관련된다(검토록, II, 6)- 가운데 43 장으로 이루어진 그 끝 제 10 권(성한용 교수 번역, 성 어거스틴의 고백론, 대한기독교서회, 2001 년, 304-374 쪽)을 먼저 요약 한 후, 이에 관한 나의 생각을 약술하려 한다.

## 2) 요약

### 2-1) 1~5 장.

1~5 장에서는 어머니 모니카 때문에 그 분께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으로 끝난 9 권까지의 모든 고백이 지니는 성격과 그리고 그 방법과 목적이 드러난다. 가슴과 글(말)을 통해, 침묵과 비(非)침묵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상태의 나를 심지어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그 분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고백 방법) 고백한 것을 읽거나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더 이상 그 죄들을 반복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면서 창조주 그 분을 인식하는 행복한 삶에, 그 분의 자비에 의해, 도달하는 것(고백 목적과 그 성격).

### 2-2) 6~43장

그 목적이 듣거나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주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행복한 삶(vita beata)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면, 삶의 그 행복에 어떻게 도달 할 수 있는 지도 고백에 포함되야 할 것이다. 어거스틴은 행복한 삶 찾는 것을 창조주 당신을 찾는 것과 동일시 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 낸다(20장). 관련 부분(6~43장)은 크게 둘로 나뉠 수 있다. 20 장 이전까지는 행복한 삶의 망각 그 자체에 관해 고백하고 있는 반면 20 장부터는 망각하고 있는 행복한 그 삶을 찾는 것 자체 곧 망각하고 있는 창조주 그 분을 찾는 것 자체에 관해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나는 행복한 삶에 관한 **망각**을 문제 삼는 부분(6-19장),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주시는 그 분을 **기억** 안에서 찾아가는 부분(20-43장)을 요약 할 것이다.

2-2-1) 6 ~ 19 장.

창조주 그 분을 찾아 가는 것은, 어거스틴의 고백에 따르면, 그 분을 알아가는(intelligere)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의 일에 속하므로, 어거스틴 자신을 육신과 연결시켜 주는 자신의 영혼을 통해 그 영혼의 힘(vis)을 초월(transibo)하여 그 분께 나아 간다(7장). 바로 이것을 그는 현재의 그 분을 생각(cogitare, 10장) 또는 명상(praesentia meditor, 8장)하는 것이라고 고백한다.

어거스틴에 있어서 영혼은 안에 있는 것인 반면 육신(corpus)은 그 밖에 있다(6장). 그리고 안에 있는 바로 이 영혼이 그 분 이외의 모든 것이 창조됐다는 것을 깨달아 간다. 영혼의 힘인 이성(ratio)을 통해 그는 '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이다(6장). 이런 시작은 육신에 생명을 주는 것은 영혼이므로, 자연스레 육신의 힘을 초월하여 **기억**이라는 영혼의 힘에 닥아 선다(7장). 기억은 개인의 영혼에 자연스레 속해 있는 힘이기 때문이다(8장).

기억(이라는 영혼의 힘)이 자신 안에 감각을 통해 주어져 간직된 모든 사물들의 상(imago, 相)들 중 어느 하나에 원하는 의지를 행사하여 불러 내 온

다. 이렇게 기억에서 불려 나와 상기(想起)된 상들을 구성하여 과거의 맥락에 맞는가 견주어 보기도 하며, 그것을 토대로 하여 미래의 행동과 사건과 희망을 추측하여 이 모든 것을 현재의 것들로서 명상한다(8장). 그러나 기억에는 사물들의 상(相)들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모든 지식들 곧 사물 자체(본질)들이 사물들의 상들보다 더 깊숙히 간직 돼 있다(9장). 기억에 간직된 이러한 '본질'을 상기하는 것이 바로 배우는 것이다(10장). 나아가서 이것들 뿐만 아니라, 기억 자체에는 욕망(cupiditas)이나 기쁨(laetitia), 두려움(metus), 슬픔(tristis) 등과 같은 여러 감정(affectio)들이 겪은 그대로가 아니라 기억력(vis memorie)에 따라 적절하게 다른 상태로 간직 돼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들을 상기하여 기억 속에서 끄집어 내 종류 별로 정의하여 논하여 말하기도 한다(14장). 이 경우, 상기되어 이름을 통해 말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에는 감각이 부재(non absunt)하기는 해도, 그것들은 말하는 개인 안에 있다(15장). 수의 이름(nomino numeros)도 마찬가지이다. 수의 경우에도 내 기억 안에 있는 것은 수의 영상이 아니라 수 그 자체(ipsi)이기 때문이다(15장).

나아가서, 사물의 상들과 사물 자체(본질)들과 그리고 감정들과 수의 개념(notio)들만을 나는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한다는 사실(13장)도 기억하며 또한 기억의 결여(privatio)인 망각(oblivio)조차 기억한다. 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 조차 기억한다는 것이다—망각을 기억 할 때는 기억하는 기억과 망각된 기억이 함께 현재한다(16장). 그러나 기억되지 않는 한, 잃어 버린 것은 발견 될 수 없다(18장).

바로 여기에서 그가 행복한 삶을 주시는 창조주 그 분을 찾아 가는 고백 안에서 기억을 이끌어 들이는 이유가 드러 난다. 왜냐하면 어거스틴 자신이 행복한 삶을 과거 그렇게 애타게 원하여 찾았으면서도(20장) 그 삶(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정작 발견하지 못한 원인은 자신의 기억에서조차, 그 분을 망각하여 잃어버려,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2-2) 20~43장.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행복한 삶을 찾는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명백(dubitatio)한 사실이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진짜 행복한 삶을 망각하고 있기에, 기억 안에 망각으로서 간직되어 있는 우리 모두의 그것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20). 그러나 행복한 그 삶을 기억하는 것은 물질적인 대상이나 수(numerus)나 웅변이 아니라 기쁨을 기억하는 것과 같다. 행복한 삶은 물질처럼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며, 소유하고는 있으나 갈망하지 않는 개념(notio)과 같은 것도 아니고, 설령 갈망하기는 해도 육신의 감각을 통해 일어나는 웅변같은 것이 아니라, 감각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닌 그럼에도 갈망하는 기쁨처럼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강한 의지로 모두 원하기 때문이다(21장).

그 고백에 따르면, 행복한 삶은 신 안에서 신을 위해 신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쁨을 그 분은 당신 만을 목적으로 예배하는 경건한 자에게만 주신다(22장). 그러나 그 분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과는 달리 진리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다(23장).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모두 진리 안에서의 기쁨을 원하고 있다. 진리 안의 사람이라면 속임 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원하는 자는 한 명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진리를 미워하는가? 진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사랑하여, 스스로 속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도 자신들이 속고 있음을 시인하기 않기 때문이다(23장). 이런 까닭에 망각된 진리 자체이신 당신의 자비로 택하셔서 기억 안에서 자신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고 말하는 어거스틴은 진리를 처음 알게 된 때부터는 그 분을 잊어 본적이 없다고 고백한다(24장).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기억의 동물적인 부분 곧 육신들의 영상들 사이에서도, 사물 자체(본질)들이나 감정들이 간직된 기억의 부분에서도, 본디 마음(animus) 자리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신의 어떤 영상들도 아니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감정들도 아니며 또한 영혼 자체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것은 변하나 이것들을 초월 해 있는 하나님은 불변하시

므로 그렇다는 것이다.

나머지 25 장부터 43 장까지에서 어거스틴은 꿈 속의(30장), 먹을 욕심의(31장), 향내음의(32장), 소리의(33장), 보는 것의(34장), 호기심의(35장), 교만의(36장), 칭찬의(37장), 허영의(38장), 자기만족(39장) 등의 유혹에 빠진 비참한 실존 인간(40장)인 자신을 하나님이며 동시에 인간이신(42장)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 창조주 그 분과 화해시키셨다고 고백한다(43장)

**3) 나의 생각 또는 느낌.**

이미 언급 됐지만,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을 사목(司牧)의 일환(一環)으로 출간한다. 창조주 그 분께로 되돌아 오도록 하는 그래서 오직 그 분만을 위해 그 분을 찬미하는 가운데서 진리 안의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이끄는, 사목(司牧)과 같은 목적을 고백론은 지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목회(牧會) 성격을 지니는 그의 '시'(詩)가 어떻게 고전 일반의 반열에 들어 설 수 있었을까? 고전이라 함은 사회 구성원 일부가 아니라, 그 대부분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읽히는 가운데 점차 역사적으로 그것의 내용이 문화적인 삶 일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에는 그 역사적 통시성(通時性) 뿐만이 아니라 진실성에 활력(活力)까지 부여 돼 있다.

먼저, 고백록은 신학 뿐만이 아니라, 심리학과 철학 등의 인문학에까지 폭 넓은 영향을 미쳐 왔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성서 해석을 위해, 이교(異敎)적인 내용의 한계를 지닌 당시 신 플라톤주의 등의 철학에서 빌려 온 용어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 진리를 옹호 또는 변호 할 수 있는 장치들을 제공하는 동시에 거꾸로 이교도들이 기독교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 주었다-그 만큼 넓은 지성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고전은 바로 이러한 폭 넓은 지성의 소유자로부터 유래한다. 그러한 지성으로부터 나온 것이었기

에 또 다른 그의 대저(大著) 신국론 이라는 고전은 제국의 반 쪽인 서 로마 아니 그 당시의 로마 제국 전체의 종교·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 일반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러한 그의 신국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반드시 그의 고백론을 읽어 그것의 내용을 자기의 것으로 해야만 한다. 그리고 고백론의 전취(全取)를 위해서는 제 10 권을 이해(理解)하여, 그것에 핵심적인 몇 몇 (철학적) 개념들을 선취(先取)해야 만 한다—고백의 성격와 방법과 목적이 그것들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물론 선취된 그 개념들은 종국(終局)에는 기독교 진리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方便)이기는 해도 말이다.

'기억', '시간'(과거, 현재, 미래), '감정', '본질'(사물 자체), '행복', '생명' 등등이 바로 그러한 개념들에 속한다. 이것들은 현대 철학으로 이어지는 철학의 역사 뿐만 아니라 심리학과 문학의 역사를 이루어 내는 핵심적인 것들이 아닌가!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러한 지성적인 개념들을 빌려오기는 해도 그것들을 적절한 한계 이내에서만 사용한다. 그 분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하여 과거 기억 안에서 미래의 예기(豫期)를 통해 현재의 그 분을 찾아 명상하는 과정에서 말이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 감정과 '본질'(학문)을 넘어, 종교의 무한한 세계로 초월하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 독자들을 '신비'한 종교에로 이끌어 들이기 위해 세속적인 철학(학문) 개념들에게 절차적 기능을 부여 한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기독교의 '지성'화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의 고백론은 신학의 영역에서 독보적인 고전(古典) 위치를 점유한다. 고백론이라는 책을 거치지 않고는 신학과 기독교 철학 그리고 종교학에 더 깊숙이 들어 설 수 없으므로 그렇다. 그래서 이들 영역의 전문가들이라면 나아가서 설령 전문가는 아니더래도 관심을 지닌 일반인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책이다. 이 책으로부터 미래의 그 영역을 향한 새로운 발 걸음이 내 딛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고전은 새로운 시대 문화의 싹을 트이게 하는 자양분을 제공한다—나는 고백론에서 그것을 맛 본다.